

제60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8년 9월 12일)

## 신선 같은 이들과 만나는 시간

오다연 | 202호 서화실Ⅱ | 18:00~18:30

달밤에 홀로 생황을 부는 동자, 소를 타고 길을 나서는 노자老子, 중국 전국시대 은거자인 귀곡선생, 음중팔선飲中八仙 중 한 사람인 하지장賀知章, 당나라 측천무후則天武后(625~705) 때 조성된 거대한 불상, 기이하게 생긴 큰 돌을 보고 절을 했던 북송의 미불米芾(자는 元章), 꽃구경에 심취하여 친구와의 약속을 잊은 시인 소옹邵雍, 그리고 동자와 함께 거북이를 바라보는 신선. 19세기 중반, 화가 유숙劉淑(1827~1873)이 전하는 여덟 개의 이야기 그림에는 신선과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들의 풍류와 아취가 담겨있다.

그림은 글로 써내려가는 문학에 비해 단순하게 재현되지만, 시각적 이미지는 보다 선명하고 회화적 표현이 갖는 의미는 함축적일 수 있다. 역사적 인물이나 일화逸話を 소재로 한 고사인물 그림은 하나의 이미지가 형성되고 나면, 화가에 따라 약간의 변화를 더해가며 반복적으로 제작하였다. 예를 들면 노자의 경우, 자신의 뜻이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우靑牛를 타고 함곡관을 나서 서역으로 향하는 장면이 그의 삶을 대표하는 장면이 되었다. 따라서 소를 타고 이동하는 노인이 노자라는 것을 알고 보면, 세상과 인연을 끊고 서역으로 간 노자의 결단을 가늠해 볼 수 있게 된다. 그림을 이해하는 폭이 더욱 넓어진 것이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중국의 고사인물에 대한 정보가 교양이었기 때문에 고사인물화를 보면서 그 주제를 쉽게 파악했다. 조선 후기, 고사인물화는 문인들 사이에서 유행하였고 화가들은 화첩이나 병풍, 족자 등 여러 매체로 그림을 제작하였다. 유숙은 이전까지는 잘 그려지지 않았던 귀곡선생과 측천무후가 조성했던 대불, 수노인을 그리며 인물 및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더했다. 산 속에서 한가로이 책을 읽고 있는 은거자, 우거진 가시나무 덩굴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불상, 오래먹을 수 있는 채소를 설명하는 글이 더해진 수노인은 오늘날까지 그림을 마주한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그림 보는 재미를 선사한다.



유숙, <고사인물도> 중 1,2쪽, 조선 19세기, 종이에 옅은 색, 115.5x47.5cm, 덕수3913

제60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8년 9월 12일)

## 조선 지도 연대기

장상훈 | 특별전시실 및 중근세관 114호실 | 18:00~18:30

고려의 지도학 성과를 계승한 조선은 건국 10년만인 1402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라는 기념비적인 세계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을 위해 세종은 1424년 전국의 지리 정보를 광범위하게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15세기에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1481) 등 여러 지리지로 편찬되었습니다. 이렇게 획기적으로 확장된 지리 지식은 새로운 전국지도를 만드는 데도 유용했습니다. 정척과 양성지가 1463년 세종에게 바친 <동국지도>는 이러한 결과물로 17세기까지 가장 권위 있는 지도 유형이 되었고, 민간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지도를 19세기까지도 사용했습니다.

18세기부터는 조선지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합니다. 왜란과 호란의 피해를 극복하고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지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쓰임새에 적합한 여러 행정용 지도와 국방지도를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수요에 따라 대중적인 지도책과 산도山圖 등 다양한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개별 고을을 상세히 그린 지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이용자의 기호에 따라 표현 방식도 회화 식과 방안方眼 식의 두 갈래로 발전합니다. 특히 대축척의 방안 지도가 발달하면서, 대축척 전국지도의 탄생에 길을 열었습니다. 지도의 수요가 점차 늘면서 인기가 있는 지도는 목판본으로 만들어 보급했습니다.



그림1 <광도지도 八道地圖>

조선, 18세기, 종이에 먹과 색  
105.0×60.0cm, 낱장,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그림2 <관북지도 關北地圖>

조선, 18세기 중반, 종이에 먹과 색  
75.5×45.0cm, 첩,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제60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8년 9월 12일)

## 철기 제작과 보존

-가야 철기를 중심으로-

김미도리 | 107호 가야실 | 19:00~19:30

철鐵Iron 은 인류가 불을 사용한 이후, 인류와 가장 밀접한 금속으로 자리 매김하였습니다. 지금도 건축 자재나 구조물, 선박, 자동차, 기계 등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금속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철 속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량을 조절하여 경도와 강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 분석이 가능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오랜 기간에 걸친 경험의 축적으로 다양한 성질을 가진 철기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철의 녹는점은 1536℃으로, 철광석을 완전히 녹일 수 있는 기술이 없을 때는 800℃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가열하여 물렁물렁해진 광석을 망치로 두드려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철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철기는 품질이 좋지 않아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한반도에서 철을 만들고 철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3세기 이후입니다. 이 시기부터 진천 석장리 유적이나 경주 황성동 유적, 화성 기안동 유적 등 대규모 제철유적이 확인되는데 이곳에서는 용해로, 정련로, 단야로, 폐기장 등 철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일련의 시설들이 확인됩니다. 이곳에서는 또한 철제 농기구와 무기들을 만든 흔적들이 확인됩니다. 농기구는 생산력 증대에, 무기는 군사력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듯 철은 예나 지금이나 귀중한 도구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 유역에 자리 잡았던 가야는 풍부한 철을 기반으로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가야의 철 생산은 3세기 경에는 중국에 사서에 기록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철은 가까운 한韓, 서북한지역의 한군현漢郡縣과 바다 넘어 왜에까지 수출하였습니다. 이런 철을 바탕으로 4세기 대의 가야는 한반도에서 가장 발전한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야의 철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갑옷입니다. 철로 만든 제품 중 기술적으로 가장 상위에 있는 갑옷을 보면 단단한 철을 판으로 넓게 만들어 옷처럼 재단하고 가죽으로 엮는 등 다양한 기술을 보여줍니다.



제60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8년 9월 12일)

## 특별전<황금문명 엘도라도>(5)

오세은 | 기획전시실 | 19:00~19:30

남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평생 동안 다른 대상을 동경했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은 여러 개의 영혼을 갖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자신의 걸모습을 옷의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제든 원하는 대상과 옷을 바꿔 입고 변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재규어의 영혼을 필요로 하면 재규어 가면을 쓰고 주변의 재규어를 관찰하여 동일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정체성을 숨기고 동물의 정체성을 흉내내어 본인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박쥐의 영혼이 필요하면 귀와 코에 장신구를 착용하여 외형을 박쥐로 변신하고 세상을 박쥐의 관점에서 인지하였습니다. 밤을 통제하고, 동굴에 살고, 피를 흡혈하는 박쥐의 습성으로 식인하는 습성으로 적을 대하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거꾸로 관찰했습니다. 이는 사람과 동물의 현재 상황을 초월하여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변환시켜 또 다른 정체성으로 변신하고자 한 것입니다.

고대 원주민 사회는 대부분 우주, 자연, 인간의 상호관계를 샤머니즘의 종교적 관습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상세계와 지하세계 그리고 높은 곳의 천상세계를 우주라고 생각하고 샤먼은 대부분 매우 총명한 사람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우주의 질서를 관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남아메리카 원시사회에서도 샤먼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샤먼만이 영혼들의 세계에 접근하여 영혼과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병을 일으킨 신이나 악마를 찾아낼 수도 있고 부족이 사냥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는 신들에게 가서 조언을 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박쥐인간 장식, 600~1600년,  
7.2×5.9cm, 콜롬비아 산타마르타

또한 죽은 자의 영혼을 관장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샤먼은 중재인으로써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샤먼은 항상 자비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규어 장식으로 몸을 치장한 샤먼은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 초자연적인 존재들과 상호작용을 하여 적을 물리치고 부족 구성원들이 위험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족장을 도왔습니다. 남아메리카 샤먼들은 독특하게도 의례에 환각제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서는 약 100여 종의 식물이 환각제로 쓰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환각제를 복용한 후 노래를 부르거나 주문을 외우면서 재규어로 변신하여 초자연적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샤먼의 역할은 오늘날의 의사와 사제, 치유자를 합해 놓은 것입니다.